

흔들리는 黨心 위기의 새정치

총선 5개월 앞... 당비 안 낸 광주·전남 권리당원 75% 넘어서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의 핵심 지지 기반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새정치연합 광주·전남지역 권리당원 가운데 지난 9월말까지 당비를 내지 않은 당원 비율이 75%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4면>

차기 총선을 5개월 앞두고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이 대폭 늘기보다는 내지 않은 당원이 무려 75%에 이르고 있는 것은 새정치연합에 대한 싸늘한 지역 민심을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다.

15일 새정치연합 조직국과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등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광주·전남지역 권리당원 17만2011명 가운데 정상적으로 당비를 내지 않은 권리당원은 13만407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시당의 경우, 전체 당원 24만3456명 가운데 1000원 이상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은 5만41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당비를 내지 않은 권리당원은 3만6787명으로 전체의 73.5%를 차지했다. 전남도당은 전체 당원이 36만5843명이 이 가운데 권리당원은 12만1970명이지만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권리당원은 9만3680명으로 전체의 76.8%를 집계했다.

광주·전남지역 권리당원 10명 가운데 7명은 당비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내년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

에서 권리당원들의 대규모 당비 미납 사태는 극히 이례적인 현상이다. 그동안 지방선거나 총선을 앞두고 당비를 납부하는 권리당원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다. 이는 새정치연합에 대한 실망감과 내년 총선에서의 권리당원 경선 비중이 크게 줄어드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새정치연합의 핵심 지지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신당이 성공적으로 출범한다면 지역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본격화하면서 새정치연합의 권리당원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각 지역위원회에 당비 미납 권리당원 명부를 내려 보내거나 자체적으로 조직 정비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반응이 시원치 않아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밀린 당비를 내겠다는 긍정적 답변보다는 신중론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아예 탈당하겠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주대문 전남도당 사무국장은 "새정치연합에 대한 실망감과 신당 출범 움직임, 당원 경선 비중 감소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면서 권리당원 당비 미납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남대 의예과 383·조선대 의예과 378점

광주진학부장협의회 분석

2016학년도 대학 정시모집에서 서울대 인문계열에 지원하려면 387점, 자연계열의 경우 378점은 되어 할 것이라는 광주지역 고교 진학부장들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물수능'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전년도에 비해 지원 가능 점수대가 다소 낮아지면서 전남대 의예과 지원 가능 점수도 383점, 조선대 의예과는 378점으로 분류됐다.

광주시교육청 진학지원단과 광주진학부장협의회는 15일 광주 고교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역별 분석 결과와 기출점 결과를 토대로 한 대학별 지원 가능 점수를 공개했다. <관련기사 7면>

진학부장들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대의 경우 국·수·영·탐구 영역 400점을 기준으로 인문계열은 387점(서울대식 점수 386.6점, 국어 100·수학 120·영어 100·탐구 80), 자연계열은 378점(= 376.4점) 이상 되어 지원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남대 의예과는 383점으로, 조선대 의예과는 378점으로 추정됐다.

전남대 영어교육학과는 364점, 조선대 간호학과 325점 등으로 분류됐고 광주대대는 여학생의 경우 362점, 남학생은 360점은 되어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광주과학기술원은 수학 B형 응시자 기준으로 375점이 합격선이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비탄의 파리... 불꺼진 에펠탑



지난 13일 밤 프랑스 소방관들이 테러가 발생한 바타클랑(Bataclan) 공연장 인근에서 부상자들을 구하고 있다.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공연장에 난입한 테러리스트들은 관중을 향해 총을 발사했으며, 프랑스 군경은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서 3시간여가 흐른 14일 0시 45분께 진입작전에 나서 시민들을 구출했다. /연합뉴스

IS, 공연장·축구경기장 등 6곳서 연쇄테러... 129명 사망 2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 최악의 참사... 전 세계 애도 물결

프랑스 파리의 공연장과 축구경기장 등 6곳에서 13일(이하 현지시간)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총기 난사와 자살폭탄공격 등 최악의 동시다발 테러가 발생해 최소 129명이 사망했다. <관련기사 2·3면>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내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발생한 최악의 참사인 이번 테러의 배후로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지목했다. IS도

성명을 내고 이번 공격이 자신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 검찰은 14일 기자회견을 하고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모두 6곳에서 발생한 총기·폭탄 테러로 인한 사망자가 현재까지 모두 12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부상자는 352명이며, 이 가운데 99명은 중상을 입어 희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테러에 3개 팀이 연루됐으며, 총 7명의 테러범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테러범 가운데 한 명은 프랑스 태생인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정시모집 | 062)605-1114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자살폭탄 테러범들이 모두 똑같은 폭약장치가 설치된 조끼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번 테러는 13일 밤 오후 9시 20분께 파리 시내 10구 알리베르 가에서 한 공연이 반자동 화기로 '카리옹' 바를 향해 난사하면서 시작됐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곳은 파리 11구 볼테르 가에 있는 공연장 바타클랑 극장이었다. 1000여 명의 관객이 미국 록 밴드 '이글스 오브 데스메탈'의 공연을 즐기고 있던 이곳에서 오후 10시께 AK-47 소총으로 무장한 테러범들이 "신은 위대하다. 시리아를 위해" 등의 말을 외치며 인질극을 시작했다.

14일 오전 0시 45분까지 3시간 가까이 이어진 인질극에서 희생자가 대거 발생했다. 프랑스 검찰은 바타클랑 극장에서만 99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올랑드 대통령의 발표가 나온 후 IS도 곧바로 성명을 통해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정부, 프랑스 여행자제 경고 대테러 대책 보완·개선키로

정부는 1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프랑스 테러 발생 직후 '재외국민 안전대책 및 종합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수도권(일드프랑스)에는 '여행 자제'에 해당하는 황색경보를, 프랑스 본토의 나머지 전 지역에는 '여행 유의'에 해당하는 남색 경보를 각각 발령했다. 정부는 여행유의(남색)→여행자제(황색)→철수권고(적색)→여행금지(흑색) 등 4단계의 여행경보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와대와 총리실, 외교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현행 대테러 대책을 보완·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테러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철저한 동향파악과 입국 규제를 하기로 했다. /박지정기자 jkpark@kwangju.co.kr

메아리소리가 들려오는 제주여행

버스타어(2박3일)

상품가격	완도, 여수출발 269,000원 / 목포출발 249,000원 상품판매기간: 10월12일 ~ 12월 20일까지
출발인원	10인 이상출발 / 10인 이하 별도 문의 / 20인 이상 오메가서비스
포함사항	1. 선박: 완도-제주 or 목포-제주 왕복 선박 (여객터미널 이용료 포함) 2. 호텔: 신축 관광호텔 4인실 기준 2박 3. 차량: 25인승 소형버스 3일 (20명 이상 45인승 대형버스) 4. 전일정 관광지, 전일정 식사 포함 (완도발 7식, 목포발 6식)
선박정보	블루나래호: 완도(09:30발) → 제주(11:10착) / 제주(16:30발) → 완도(18:10착) 씨스타크루즈호: 목포(09:00발) → 제주(13:20착) / 제주(17:00발) → 목포(21:20착)

1일차 목포 or 완도항 출발 → 제주항도착 → 비빔밥만들기체험(목포출발 제외) → 천연염색체험 → 메아리체험(제주오름 트레킹) → 저녁식사(갈치조림) → 숙소

2일차 숙소 → 한라산 원전정복(성판악-백록담 코스 / 중식 도시락) → 해수사우나 → 저녁식사(흑돼지구이) → 숙소

3일차 숙소 → 세계유네스코 등재 수월봉, 차귀도 탐방 → 점심식사(해물전골) → 조랑말승마체험 → 디미파크 기아공연(완도출발 제외) → 농수산물 직판장 → 제주항 → 목포 or 완도항 도착

본 일정은 현지 기상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소비자보호원의 취소수수료 규정을 따릅니다.

렌터카 자유여행(2박3일)

상품가격	4인기준 1인 149,000원부터 / 3인기준 1인 169,000원부터 2인기준 1인 214,000원부터 상품판매기간: 10월12일 ~ 12월 20일까지 * 본상품은 예약현황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출발인원	2인 이상출발
포함사항	1. 항공: 아시아나항공 왕복 항공권 (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2. 호텔: 신축 관광호텔 2박 기준 (2인 조식포함) 3. 차량: K5, YF소나타 LPG 기준 (48시간) / 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 포함 4. 식사, 관광지 불포함.
항공정보	항공사: 아시아나항공 / 이코노미(일반석) 항공시간: 광주출발: 15:45 제주출발: 14:25 (2박3일 일정) 유의사항: 항공기 정비 및 기상 상황에 따라 운항 스케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일차 광주공항 출발 → 제주공항도착 후 렌터카 인수 → 자유일정 → 숙소

2일차 자유일정

3일차 숙소 → 자유일정 → 제주공항 도착 및 렌터카 반납 → 광주공항 도착

본 일정은 현지 기상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소비자보호원의 취소수수료 규정을 따릅니다.

할인 제주숙소

제주할인 펜션	1박 50,000원 부터 (2인기준 / 주중, 주말, 연휴기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수 있음.)
제주할인 리조트	1박 85,000원 부터 (2인기준 / 주중, 주말, 연휴기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수 있음.)
제주할인 호텔	1박 75,000원 부터 (2인기준 / 주중, 주말, 연휴기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수 있음.)

본 상품은 예약현황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으며, 소비자보호원의 취소수수료 규정을 따릅니다.

할인 제주렌터카

아반떼, 레이, K3, SM3	[24시간 기준] 주중 17,000원 / 주말 23,000원
K5, YF소나타	[24시간 기준] 주중 19,000원 / 주말 26,000원
카니발, 그랜저스타렉스	[24시간 기준] 주중 39,000원 / 주말 49,000원

본 상품은 예약현황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으며, 소비자보호원의 취소수수료 규정을 따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컨소시엄 참여업체 예약문의 | 064-743-1100